

GRAY BY SILVER

NOTES & LYRICS



■
GRAY BY SIL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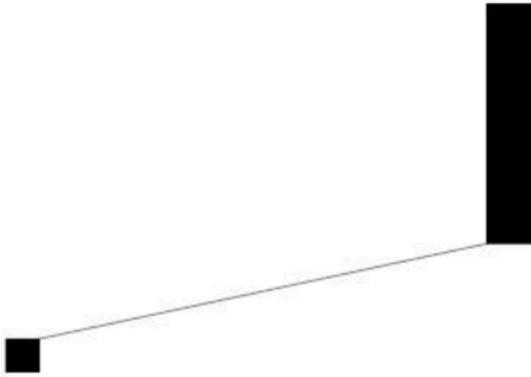
그레이바이실버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이한빈과
보컬리스트이자 작사가 이한울, 그리고 대금 연주자 김태현과
드러머 박예담으로 이루어진 음악 단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찬란하고 수많은 색깔도 그 그림자는 모두
회색이듯이, 다양한 장르를 관통하는 회색 지점에서 순수 창작 음악을
꾸준히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음악의 고유성과 현대음악의 독창성,
그리고 재즈의 자유로움과 클래식의 정교한 구조 모두를 아우르는
고유한 균형을 찾아내고자 노력해 왔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내며
한국 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GRAY BY SILVER
TOUR LOG



GRAY BY SILVER

NOTES & LYRICS



■ 1st ALBUM

ETERNAL GRAY

1. 다스름 | DASEUREUM
2. GOLDEN WAVE
3. 아이야 | AYIYA
4. BLACK HOLE BLUES
5. 오봉산 | O-BONG MOUNTAIN
6. 새 타령 | BIRD SONG
7. 해방 | LIBERATION
8. ETERNAL GRAY

■ 2st Album

SONG OF ETHNIC | 민족의 노래

1. 다스름 | DASEUREUM
2. 산유화 - 山有花
3. 종달새 | LARK v
4. 진달래꽃 | AZALEA
5. Vísur Vatnsenda-Rósu
6. 뱃노래 | SEA SHANTY
7. 섬집아기 | ISLAND BABY

■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아마도 꽤 오래전 여름,
한 배우가 철가방을 들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를 외쳤다.
민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미묘한 이질감을 지울 수 없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시간이 흘러 코로나가 한창이던 가을,
우연히 전 TV에서는 광복 75주년이라는 문구와 함께 '트로트의 민족'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배달 광고를 보고 처음 느꼈던 묘한 느낌이 온전한
확신으로 변했고, 당시 제작 중인 2집 앨범 제목에 <민족>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음악사, 아니 나아가서 예술사들 돌이켜 볼 때,
우리가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색깔을 지닌 예술의 민족이라는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든 부정할 수 없다.

다양하고 많은 줄기의 예술이 모든 계층의 삶을 엮어 내고 있었고,
식민, 전쟁, 분단의 역사 속에서도 그 비극을 독자적인 예술로 바꿔내는 것에
거침이 없었던 민족이었다.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과, 전통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노력이 함께
합일을 이루어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 그 고유의 아름다움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온전한 균형의 실마리’

우리가 예술의 민족이라는 지점을 넘어,
그레이바이실버가 이야기하는 '민족'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지점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과 인종 그리고 문화를 구분 짓는 '민족'의 의미에서
더욱 나아가 '연대'라는 지점을 바라본다.

다양한 민족음악을 들어보면 분명 고유한 개성과 차별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리고 이 오묘한 감각은 우리가 다름을 통해
하나가 되는 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기에 '새롭지만 익숙한 아름다움'이라는 이 모순된 지점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찾아왔고,
또 앞으로도 찾아갈 온전한 균형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여정을 음악으로 나누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모든 구분을 초월하고
우리가 모두 하나 되기를 바라며.